다산포럼

그 많던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바닷가 자갈들도 우리하고 놀고요
푸른 하늘 저 별들도 우리하고 놀아요
많기도 하구나 우리들의 동무들
정다웁게 잘 자라자 선감학원 형제들"

1964년 봄이었을 것이다. 몇 명의 소년들은 굶주리다가 죽은 친구를 원내 야산에 묻고 나서 이 노래를 불렀다. 숙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들이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에서 있었던 풍경이다. 그 소년은 1963년 5월 1일, 쌍둥이 동생과 함께 이곳에 수용되었다. 그날 서울 시립아동보호소에서 함께 군용 트럭을 타고 온 소년들은 약 25명이었다. 그는 다행히 초등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굶주림에 시달렸고 병약했다.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의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는 조회에서, 작업장에서 부르던 선감학원가였다. 심지어는 얻어맞으면서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태평양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원한 선감원이라는 이름의 부랑아동 수용소, 그곳은 40년간 지속되었던 고난의 현장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곳의 원생들을 '연성'하여 '산업 전사'로 만들었고, 전쟁 막바지에 삼척이나 나가사키에 있는 탄광에 보냈다. 광복 후인 1946년 이곳은 선감학원이 되었고 경기도에서 운영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아동들의 고초는 지속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82년까지 4691명이 수용되었는데, 이들의 일부는 부모가 밝혀져 귀가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동들은 귀가하지 못하고, 각종 노역과 굶주림·질병·구타와 학대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다. 선감학원은 1982년 폐쇄되었지만, 우리가 이들을 일부러 모른 체 한 것은 아닐텐데, 이곳을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랐다.

2016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진상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곳에 묻힌 그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원아 대장에는 퇴원 사유가 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친구들은 그의 묘지를 기억해 냈다. 그의 작은 무덤에서 꽃신 한 켤레가 흙범벅이 된 채 발굴되었다. 그 꽃신은 누가 주었을까? 그와 함께 끌려왔지만 곧바로 격리되어 다른 곳에서 살았던 쌍둥이 동생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 경기도는 2017년 선감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 부터 3년이 흐른 뒤에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출범하자 그의 친구들은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을 신청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여 기간에 신청인과 참고인 조사를 거의 완료하고 증언들을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곤혹스러운 것은 공식적으로 24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아동들이 원내에서 사망했고, 또 상당수가 탈출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증언이 많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이곳에 묻힌 유해의 일부라도 확인하여 진실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시굴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9월 26일 개토제를 열었다. 푸른 하늘 아래, 소년들이 불렀던 노래에 나오는 별들을 대신하여 친구들이 되고자 했는지, 가을 잠자리들이 떼를 지어 날았다. 그 노래를 합창했던 소년들이 이제는 60대 후반 또는 70대 노인이 되었다. 이들에게 친구들의 묘지는 더 작고 편평하게 보였다. 피해자 대표는 어린 아동들이 수용되었고, 탈출하기 어려운 섬에 격리되었으며,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했다는 것이 선감학원 인권 침해 사건의 핵심이며, 완전한 진실 규명으로 피해자들이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도 그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날 오후 시굴했던 첫 번째 묘지에서 15세 가량의 소년 치아와 학생복 단추 세 개가 나왔다는 전갈이 왔다.

김하림의 차이나4.0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관전 포인트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5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는 전국대표대회이나 이번 대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드러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장쩌민 총서기 이래 중국 지도부는 한 차례 연임으로 10년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율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취임 이후, 반부패운동부터 시작해 2016년 당 중앙의 '핵심' 지위 획득, 2017년 19차 당대회 총서기 연임, 2018년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 2021년 역사결의 채택 등과 같은 행보로 권력과 권위를 계속 강화해 왔다. 시진핑은 자신의 통치를 신시대로 규정하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지도자로서 자신을 어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의 자진 사퇴나 반대 세력의 등장 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 중앙의 공고한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선출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전국의 각 선출 기관은 당 대표 대회를 개최하여 제 20차 당 대회에 참가할 대표 2296명을 선출했다"는 9월 25일자 신화사 보도에 의해 모두 불식되었다.

사실 당의 총서기는 임기 제한이 없으나, 국가 주석이 2회 연임에 한하는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총서기도 2회 연임을 불문율화했다. 그러나 2018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 버림으로써 총서기의 3연임, 4연임(2027~2032년)도 가능해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종신제를 예고하는 공산당 주석 제도의 부활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하다. 대부분 일단 3연임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결정 나리라 예상한다.

20차 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제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과 7인의 상무위원을 선출할 것이다. 일단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칠상팔하'(당대회 시 67세 이하는 유임, 68세 이상은 이임)라는 내규가 어떻게 적용될지의 문제이다. 물론 이 내규는 경우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후진타오 체제 이후 준수되어 왔다. 즉 올해 69세인 시총서기가 연임되면 칠상팔하의 내규가 변경되는 것이다. 또 변경된 내규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인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물론 이처럼 헌법을 개정하고 내규를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제도화된 정권 교체의 틀을 흔드는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권력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체제 내의 권력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 내부적으로 볼 경우 제도화된 정권 교체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체제 내 권력 엘리트 층에게 자신이나 집단의 미래와 출세에 대한 전망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정권교체나 인사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미래를 불확실하게 한다.

어떻든 7인의 상무위원들이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가 향후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현 총리인 리커창은 퇴임이 확실시되므로, 후임에 누가 총리로 선출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이다. 현재로서는 후춘화(胡春華), 띵쉐샹(丁薛祥), 천민얼(陳敏爾), 리창(李强), 리시(李希), 리우허(劉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60년대 생으로 6세대의 주축이다. 물론 전혀 의외의 인물이 부상할 수도 있다. 후진타오 체제에서는 상무위원이 아홉 명이었는데, 시진핑 시대에는 일곱 명으로 줄었듯이, 상무위원의 숫자는 변동될 수도 있다. 숫자가 늘면 집단지도체제가 강화되는 것이고, 숫자가 준다면 개인적 영향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 시진핑의 연임에 따라 6세대의 중요성보다는 1970년대 출생인 7세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 중에서 어떤 인물이 두각을 드러낼지도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시진핑이 2032년까지 총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7세대들이 대략 50대 후반에서 60세 전후가 된다. 20차 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중국이나 한중 관계의 측면, 국제 정세에서도 자못 궁금한 일이다.

기 고

광주의 스포츠 선진 도시 도약 방안

최갑렬
광주광역시 광산구체육회장

미국 뉴욕 하면 양키스, LA 하면 다저스, 프랑스 파리 하면 생제르망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또한 영국 맨체스터시티는 맨체스터 시티 FC와 유나이티드, 스페인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FC 등으로 유명 도시마다 그 도시를 알리며 대표하는 스포츠팀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이 될 만큼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을 알리기 위해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스프츠 팀과 각종 대회 유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으로 보인다. 스포츠가 지닌 정신과 스포츠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산업의 연계는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광주는 2002년 월드컵대회,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22년 양궁월드컵 대회 등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기아 타이거즈, 광주 FC,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 등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을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광주 출신 선수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광주를 알리는데 첨병 역할을 담당했다. 그만큼 광주와 스포츠는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면 광주 스포츠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스포츠 선진 도시인가라고 묻는다면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스포츠 선진 도시는 아니라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스포츠 선진 도시는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는 각 도시마다 배경과 환경이 다르고 스포츠가 발전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내부인, 즉 시민들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론 도시 밖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외부자적 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문화가 제대로 정착한 도시가 스포츠 선진 도시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광주가 스포츠 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스포츠 선진 도시는 말로, 흔히 말하는 수사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모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광주가 스포츠 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스포츠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 즉 선순환 스포츠 생태계 구축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광주가 스포츠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저변 확대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 21세기 스포츠는 다양한 영역, 특히 광고 등을 비롯해 다양해 스포츠 산업과 연동돼 발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체육회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만 방점을 두기보다는 조화와 균형에 입각해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우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교육청과 체육 인재 양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체육회, 스포츠 구단, 엘리트 체육 지도자, 선수, 생활체육 관계자, 광주 시민 등 거버넌스(Governence)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광주 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社 說

'빚더미' 소상공인 새 출발 지원 실효성 있게

광주·전남 소상공인 세 명 중 한 명이 1억 원 이상 고액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은 줄고 빚만 늘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펴낸 '2021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부채가 1억 원이 넘는 소상공인 비중은 광주가 30.0%, 전남은 43.9%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광주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37.1%, 전남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29.9%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악재는 코로나19였다.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소상공인 비율은 광주 75.8%, 전남 68.2%에 달했다. 매출 급감은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이자를 가장 부담되는 고정 비용으로 선택한 비율은 광주 29.0%, 전남 24.2%에 달했고, 열 명 중 일곱 명은 현재 자금 운용 상황이 어렵다고 답했다. 게다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은 장벽에 가깝다. 실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광주는 24.3%, 전남은 33.0%나 됐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코로나19가 지속하면 가게 문을 닫거나 폐업을 고민해 보겠다는 응답률이 광주 50.5%, 전남 42.0%에 달한다는 데 있다. 이들에게 다급한 현안은 자금 확보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 43.0%는 가장 필요한 코로나19 정책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대출'을 꼽았다.

다행히 오늘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 기금)이 시작됐으나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꾸리는 토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소상공인들이 가게와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감세 대책, 대출 이자 경감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병원 환자 쏠림 심화…대기 해소 대책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광주 지역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지난 1~3월 월평균 6만 2392명이었던 외래 환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4~8월에는 7만 468명으로 늘었다. 8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명이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CT 촬영도 물리적 한계인 하루 360건을 넘어 450건까지 늘리고 있는 형편이다. 조선대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한 달 동안 3만 7676명의 외래 환자가 찾았는데 올 8월에는 4만 5223명으로 20%나 증가했다.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은 전국적인 추세다. 전국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내원 일수는 지난 2010년 3337만여 일에서 2020년에는 3944만여 일로 18.1% 증가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대기 시간의 증가다. 가벼운 증상에도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 데다 문진 과정에 코로나19 자가 진단 검사가 포함돼 더욱 길어졌다고 한다.

'한 시간 대기, 3분 진료', 대기 시간에 비해 의사의 진료 시간이 매우 짧은 것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담긴 표현이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음에도 환자의 불만이 높은 것은 고질적인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 시간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과 낮은 진료 수가 문제가 꼽힌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기관 간 협력과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경증 환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분 진료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 '15분 진료'(심층 진찰) 사업도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가을 축제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낱" (장석주 시인 '대추 한 알')

결실의 계절이다. 지난 주말 시골집에서 대추를 땄다. 4년여 전 심은 대추나무인데 첫 수확이다. 지난해에 달랑 한 알 열린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한 바가지쯤 땄으니 이보다 오질 수가 없다. 어느새 연초록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한 열매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한 알을 깨물어 보니 단맛이 들었다. 여름철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떨어지지 않고, 가을 햇살에 알알이 영근 열매들이다.

"적막의 포로가 되는 것/ 궁금한 게 없이 게을러지는 것/ 아무 이유 없이 걷는 것/ 햇볕이 슬어놓은 나락 냄새 맡는 것/ 마른 풀처럼 더 이상 뻗지 않는 것/ 가끔 소낙비 흠씬 맞는 것/ 혼자 우는 것/ 울다가 잠자리처럼 임종하는 것/ 초록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안도현 시인 '가을의 소원')

절로 시인의 감성에 동조된다. 시나브로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 가로수들을 보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겨울을 채비하는 나무와 풀들은 초록빛을 벗고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여행자들 역시 서정적인 가을을 만끽하러 산으로, 들로, 바다로 길을 나서고 싶어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동안 중단됐던 가을 축제가 재개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축제 개최가 가능해졌다. 이달 예정된 광주·전남 축제는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페스티벌'(13~17일)을 비롯해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7~9일),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7~10일), '대한민국 마한문화제'(8~9일),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8~16일) '목포 항구축제'(14~16일), '대한민국 국향대전'(21~11월 6일) 등 다채롭다.

3년 만에 열리는 가을 축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한다. 모처럼 가을 햇살을 듬뿍 받으며 나들이에 나선 여행자들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대추 한 알' 같은 마음속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